China Issue

미 · 중 정상회담 예상 논제와 전망

Analyst 여태경 Tk.yeo@hmsec.com

5월 14~15일 베이징 미 · 중 정상회담 개최

-2025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담 중 개최된 미 · 중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양국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 등이 사전 협상을 통해 예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5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린젠)은 정례 기자 회견에서 1)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 2)방중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3)현재 언론에 더 제공할 정보는 없다고 설명하며 사전 정보제공은 차단함

미 · 중 정상회담에서 다룰 예상 논제와 전망

①대만 문제: 중국의 '레드라인'인 대만과 관련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동의 및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축소 요구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바이든 정부와 달리 마찰이 없었던 만큼 양국의 합의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게 성과를 제공하기 어렵지는 않을 전망

②경제 및 통상 문제: 양국의 관세 문제는 지난해 11월 협의를 통해 장기적 유예가 진행 중이며, 미국내 정부와 무역법원간 위법 판결 문제도 있는 만큼 관세율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양국의 수출통제 또는 중국의 미국산 물품 수입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최근 미국의 반도체 설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있었고,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 소재의 대미 안정적 공급 외에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트럼프 정부의 이번 협상의 성과 척도가 될 수밖에 없음

③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중재: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중국의 중재를 강하게 희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이 중국과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임에도 중국 정부의 중재만으로는 종전 합의를 양보할 가능성 자체가 낮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중국이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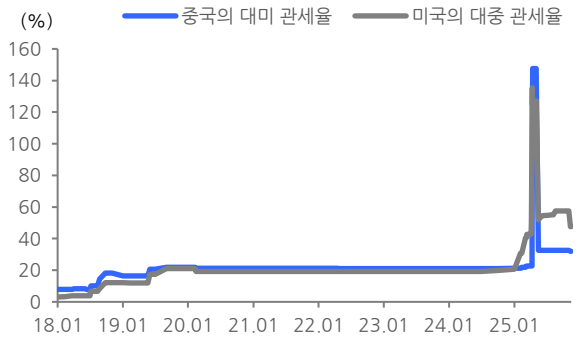
미 · 중 정상회담은 자체가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는 요인

-이란 전쟁으로 지지율에 어려움을 겪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 확대와 같은 협상 결과를 얻어낸다면 미국내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즉각적인 이익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

-중국 역시 4월 대만 국민당의 정리원 대표의 방중에 이어 미 · 중 협상에서도 대만 문제의 레드라인을 지켜낸다면 일본과의 갈등을 무색하게 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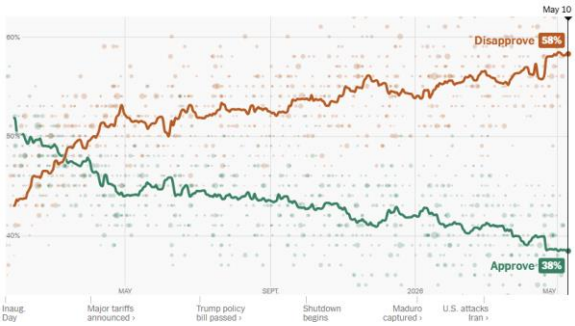
-미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부 반도체 설비 등에 대해 완화하고, 중국도 희토류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협상에서 선언한다면 상호 성공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일 전망

〈그림1〉 미·중 관세율 현황: 지난해 11월 이후 유지



자료: PIIE, 현대차증권

〈그림2〉 트럼프 지지율 추이



자료: The New York Times, Wikipedia 재인용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여태경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